

##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졸업생의 진로 확대에 관한 연구

소명환 · 윤성식 · 남궁 석\* · 조신호

부천공업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서울보건전문대학 식품영양과

(1989. 8. 2 수리)

### A Study on the Enlargement of Course in Life for the Graduates of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 Junior College

Myung-Hwan So · Sung-Sik Yoon ·  
Sok Namkung\* · Shin-Ho Cho

*Dept. of Food and Nutrition, Bucheon Technical College,  
Bucheon, Kyunggi-do, Korea*

*\*Dept. of Food and Nutrition, Seoul Health Junior College,  
Seoul, Korea*

*(Received August 2, 1989)*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way that could enlarge the course in life for the graduates of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 Junior Colleg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the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and questionnaires gathered from professors of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 Junior College and from dieticians of industry, school and hospital.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cultivation number of dieticians is too excessive in comparison with the need, and so it is necessary for the colleges to restrict the new establishment of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for a time, and for the government to tighten the employment system of dieticians.
2. The employment of dieticians will be extended to such fields as school, hospital, public health center and counsel office of nutrition to act as a nutritional educator or a medical server

in the future, and consequently the colleges which cultivate dieticians should improve the curriculum to agree with this.

3.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renovate the system of dietician arrangement to such a way as establishes a new rule in which additional dietician should be employed in accordance with the feeding number in industry and hospital, as restricts the position—combine of a dietician with a cook in a large feeding institute, as gives the qualification of a nutritional instructor only to the dietician at public health center, as gives the qualification of a nutrition—teacher to the dieticians who completed the course of study for the teaching profession and then allows them to act as a nutrition—teacher in school.

4. The way to give a higher grade of educational opportunity should be given to the graduates of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 Junior College for the supplement of dietician's faculty.

## I. 서론

중견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1979년에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이 현재의 학제로 개편되었고, 합리적인 영양관리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담당할 영양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대학에도 2년 과정의 식품영양과가 많이 개설되게 되었다. 1989년 현재 식품영양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수는 47개교이고, 1년에 배출되는 졸업생의 수는 3,840명에 달하고 있다<sup>(1)</sup>. 그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에도 식품영양과나 식생활과 등 영양사를 양성하는 학과가 51개교에 개설되어 있고 1년에 배출되는 졸업생의 수는 1,610명이다<sup>(2)</sup>.

이렇게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식품영양과 졸업생들의 취업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또 영양사는 급변하는 새로운 지식을 계속 습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산업체 취업영양사는 절대 다수가 전문대학 출신자이므로<sup>(3)</sup> 편입학 등을 통한 계속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한 교육기회제공의 길은 거의 막혀져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정황을 현직 영양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현직영양사,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 산업체 관리자 및 식품영양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 필요한 각종 통계수치는 각종 연감<sup>(2)</sup>, 전문대학편람<sup>(1)</sup>, 상공명감 등을 참고하였고,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취업실태 파악, 영양사 배치제도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의 파악 및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졸업생에 대한 편입학 기회의 확대방안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자 수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학과장 30명,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 109명, 취업영양사(서울·경기지역) 217명, 전문대학 출신 취업영양사(서울·경기지역) 152명,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2학년 재학생(서울·경기지역) 240명 및 집단급

식소를 두고 있는 산업체의 관리자(서울·경기 지역) 81 명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었다.

### 3. 설문조사 기간 및 방법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후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학과장과 교수에 대한 설문조사와 산업체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1989년 3월 20일에서 4월 20일 간에 우편으로 실시하였고, 취업영양사에 대한 설문조사는 4월 30일에서 5월 30일 간에 영양사 월례회에 참석하는 취업영양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식품영양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6월 15일 해당학교에서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 4. 설문조사 내용

식품영양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서는 ① 졸업 후 1년 내의 취업율, ② 1년 내의 전공분야 취업율, ③ 취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을 질문하였고, 식품영양과 교수에게는 ① 졸업생들에 대한 편입학 기회확대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또 취업영양사에게는 ① 대규모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의 배치수를 늘리는 데 대한 견해, ② 1명의 영양사가 담당할 수 있는 적절한 급식 인원수, ③ 대규모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데 대한 견해, ④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규제가 필요한 집단급식소의 규모를 질문하였고, 전문대학 출신 취업영양사에게는 이 이외에, ⑤ 편입학의

희망여부, ⑥ 편입학 기회의 확대방법에 대한 견해, ⑦ 편입학을 희망하는 이유 등을 추가하였다.

또 산업체 관리자에게는 취업영양사에게 질문한 ①, ②, ③, ④의 항목 이외에, ⑤ 영양사의 채용동기, ⑥ 영양사의 채용이 산업체에 도움을 주는 정도, ⑦ 영양사 채용시에 주로 고려하는 사항, ⑧ 영양사의 채용방법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재학생에 대한 설문에서는 취업영양사에게 질문한 ⑤, ⑥항의 질문만을 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식품 관련학과의 개설현황

1989년 4월 말에 우리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의 수는 117 개교이며 이중에 식품영양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47 개교이다. 이를 세분하여 본 결과는 표 1 과 같이 국립은 1 개교 뿐이며 나머지 46 개교는 사립이다. 또 계열별로는 실업계열(여자전문대학 포함)과 보건·간호계열의 학교에 식품영양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다.

또 식품영양과 뿐만 아니라 식품가공과, 조리과, 가정과 등 식품과 관련이 있는 학과들을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 본 결과는 표 2 에서와 같이 식품관련학과 중 식품영양과가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고 학생수도 가장 많다. 또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과 영남지역(부산·대구·경남·경북)에 많이 집

표 1. 식품영양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현황

구분	계열								계
	간호·보건계	실업계	여자전문대학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	무구분		
사립	9	11	7	4	1	0	14	46	
국립	0	0	0	0	0	1	0	1	
계	9	11	7	4	1	1	14	47	

자료 : 전문대학편람(1989년)<sup>1)</sup>

표 2. 전문대학 식품관련학과의 지역별 분포

지역	구분	식품영양과		식품가공과		수산가공과		조리과		전통조리과		가정과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서울	6	600	2	240	0	0	1	160	1	80	1	80	
인천	2	160	0	0	0	0	0	0	0	0	0	0	
경기	9	920	3	200	0	0	0	0	2	120	3	280	
충북	1	80	2	160	0	0	0	0	0	0	0	0	
대전	3	240	1	120	0	0	0	0	1	40	0	0	
충남	1	40	1	40	0	0	1	40	0	0	1	80	
전북	1	120	1	40	1	80	0	0	0	0	1	40	
광주	4	360	2	200	0	0	0	0	0	0	1	80	
전남	1	80	0	0	0	0	0	0	0	0	0	0	
대구	5	520	2	160	0	0	1	80	0	0	1	80	
경북	3	280	2	120	0	0	0	0	0	0	0	0	
부산	4	480	3	360	0	0	0	0	0	0	3	240	
경남	3	280	2	80	1	80	0	0	0	0	1	80	
강원	3	200	0	0	0	0	1	40	1	80	0	0	
제주	1	80	0	0	0	0	0	0	0	0	0	0	
계	47	4,440	21	1,720	2	160	4	320	5	320	12	960	

자료 : 전문대학편람(1989년)<sup>(1)</sup>

중되어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도시의 규모에 비하여 식품영양과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수와 학생수가 타 지역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취업도 그 만큼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지역은 식품관련학과로서 식품영양과만 2개교에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취업율이 타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제주지역도 식품관련학과로 식품영양과만 1개교에 개설되어 있으므로 영양사로서 뿐만 아니라 축산식품 및 수산식품 가공분야와 조리분야 등으로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식품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 수의 연도별 변화를 조사해 본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1980년에서 1989년까지의 변화를 학과별로 살펴보면 식품영양과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수가 특히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사

회에서의 영양사 수요정도를 크게 고려함이 없이 신입생들의 학과 응시율을 중시하여 1981년에서 1984년간에 식품영양과를 지나치게 많이 개설하였음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졸업 후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영양사의 수급현황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식품영양과(식생활과와 식품과학과 포함) 졸업생수와 영양사 면허증 취득자수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식품영양과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수와 영양사 합격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1988년에 배출한 졸업생의 수와 영양사의 수는 각각 5,450명과 3,840명으로 이는 1981년의 수에 비하여 약 2배 정도가 늘어난 수이다. 또 1964년 이후 1988년까지 배출된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표 3. 전문대학 식품관련학과수의 연도별 변화

학과 연도	식품영양	식품가공	수산가공	조리	전통조리	가정
1980	21	19	3	0	0	18
1981	25	25	3	0	0	21
1982	32	23	3	0	0	23
1983	36	21	4	0	0	24
1984	41	19	3	1	0	20
1985	41	20	3	1	0	18
1986	41	20	3	1	0	18
1987	43	20	2	1	0	17
1988	46	21	2	3	0	16
1989	47	21	2	4	5	12

자료 : 전문대학편람(1980~1989)<sup>(1)</sup>

표 4. 식품영양과 개설학교수와 영양사 합격자수의 연도별 현황

구분 연도	개설학교수*			졸업생수*			영양사합격자수** (전문대학+4년대학)	영양사누계**
	전문대학	4년대학	계	전문대학	4년대학	계		
1981	25	29	54	2,120	688	2,808	1,754	11,771
1982	32	31	63	2,400	857	3,257	2,377	14,148
1983	36	31	67	3,240	1,018	4,258	2,126	16,274
1984	41	36	77	3,640	988	4,628	2,338	18,612
1985	41	37	78	3,760	1,457	5,217	3,132	21,744
1986	41	40	81	3,720	1,623	5,343	2,433	24,177
1987	43	42	85	3,760	1,580	5,340	3,908	28,085
1988	46	52	98	3,840	1,610	5,450	3,847	31,932

\*문고통계연보자료(1981~1988)<sup>(2)</sup>, \*\*대한영양사회 자료<sup>(5)</sup>

의 수는 총 31,932명에 이르고 있다.

법적으로 영양사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산업체와 학교 등의 단체급식소와 입원실이 있는 각종 병원이다<sup>(4)</sup>. 영양사의 수요정도를 알기 위하여 영양사가 현재까지 주로 배치된 곳과 영양사 배치현황을 살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시설의 수는 6,090 개소이고 취업영양사의 수는 4,277 명이므로 영양사의 평균 배치율은 70%가 된다. 또 영양사가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분야는 산업체로 전체 취업영양사의 약 70%(2,987명)를 차지하고 있다.

영양사의 수급실태를 알기 위하여 표 4의 영양사 배출현황과 표 5의 영양사 배치현황을 비교하여 보면 영양사 총 면허수가 31,932개이고 취업영양사의 수가 4,277명이므로 총 면허증의 13.4%만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1년에 배출되는 영양사의 수가 3,800여명이므로 현재로서는 수요에 비하여 영양사가 지나치게 과잉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양사는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우수한 전문직종에 해당되므로 취업영양사의 대부분(86%)이 결혼 후에도 영양사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어서<sup>(6)</sup> 영양사의 새로운 취업처가 매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표 5. 영양사 진출분야별 영양사 배치 현황

구분 분야	대상시설	집단 급식소수	취업 영양사수	영양사 배치율(%)	
					체
산업체	사무실, 공장, 기숙사	4,000	2,987	74.7	
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특수병원	600	374	62.3	
학교	국민학교	693	693	100	
연수원	연수원, 훈련원	177	98	55.4	
사회복지시설	아동·노인·장애자·부랑아 복지시설	538	101	18.8	
교정시설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34	5	14.7	
관공서	구청, 정부청사	48	19	39.6	
계		6,090	4,277	70.2	

자료: 대한영양사회(국민영양 88년 11월호)<sup>(5)</sup>

표 6.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졸업 후 1년 이내의 취업률

구분	취업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평균취업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해당학교수	전분야취업	—	1	2	2	6	4	6	7	2	—	62
	전공관련분야취업	3	7	7	4	5	2	2	—	—	—	35

신규로 배출되는 영양사들의 취업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학과장 30명으로부터 졸업생의 취업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취합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졸업후 1년 이내의 취업률은 비전공분야의 취업까지 포함하여 평균 62%이며, 전공관련분야만의 취업률은 평균 35%에 불과하다. 또 전공관련 분야의 취업률이 겨우 10% 정도에 그치는 학교도 있다. 취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분야는 산업체의 영양사, 각종 회사의 사무원, 식품제조회사의 품질관리요원 등의 순위였다고 조리사로서의 진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영양사의 진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

영양개선 사업은 국민복지 증진 혹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이므로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장차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장차 영양사의 진출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분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상공명감에 명시된 산업체 중에서 종업원 50명 이상인 업체를 집계해 본 결과 총 17,113개이었으나 실제로 산업체에 취업중인 영양사는 2,987명인 점으로 보아 소규모의 산업체에서는 가능한 한 집단급식소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며, 단지 법적인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하지 못하여 집단급식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sup>(7)</sup>.

산업체로의 영양사배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업체 경영자로 하여금 영양사의 채용이 실질적으로 기업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따라서 영양사를 양성하고 있는 여러 대학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염두하여

표 7. 영양사의 진출이 더욱 늘어 날 분야

구분 분야	시설수	영양사 배치수	영양사 배치율(%)
산업체	17,113*	2,987	17.5
국민학교	7,638	693	9.1
병원	600	374	62.3
사회복지시설	641	101	15.7
보건소	225	0	0
영양상담소	-	-	-

자료: 대한영양사회(1988)

\*종업원 50명 이상인 산업체

산업체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영양사를 배출하여 소규모의 산업체에서도 스스로 영양사를 두고 집단급식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1988년 10월말의 전국 국민학교수는 7,638개교(학생수 약 4,810,000명)이고 이 중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수는 693개교(실시 학생수 약 285,000명)로 학교급식 실시율이 전체 국민학교수에 대하여 9.1%이고, 전체 학생수에 대하여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급식의 실시가 아동의 체위향상뿐만 아니라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 개발 및 바른 식습관 함양에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981년에 학교급식법이 제정·공포되어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점차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sup>(8)</sup>.

참고로 1981년에 발행된 한 자료<sup>(9)</sup>를 통하여 외국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살펴 보면 표 8과 같다. 많은 선진국들은 거의 모든 국민학교 아동들에게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를 확대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72년 이후 급식 시범학교의 운영으로 많은 운영경험을 쌓았고, 급식실시의 효과도 확인하였으며,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의 호응도도 아주 좋음을 확인하였다<sup>(10-13)</sup>. 다만 경제적인 지원문제가 학교급식 확대실시에 대한

제한점으로 대두되어 왔으나 이제는 우리의 경제력도 향상되어 1988년 말의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달러를 초과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미 많이 배출되어 있는 영양사를 활용하여 학교급식을 점차 확대 실시하여 외국의 경우처럼 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에까지 실시할 날이 필연적으로 올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체와 학교 이외에 병원,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등에도 앞으로 영양사 배치가 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소에서도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건소에 많은 영양사를 배치하여 영양지도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9년에 국민영양 개선령을 공포하여 보건소에 영양지도원을 두도록 법적인 근거는 마련해 두었으나 1987년 현재 전국의 225개소의 보건소중 영양사가 배치된 곳은 1개소도 없다.

경제기획원이 분석한 1987년의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식생활과 관계가 깊은 고혈압, 암, 당뇨병 등 소위 성인병에 의한 사망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러한 질병에 의한 사망자의 수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력 향상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로 사망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sup>(14)</sup>.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소에도 많은 영양사가 배치되어 내실있는 영양지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영양사의 진출이 많이 이루어진 곳은 집단급식소이며, 이곳에서의 주 업무는 급식관리이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앞으로는 영양사가 급식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의료인의 일원으로, 급식학교나 보건소에서는 영양교육 담당자 혹은 영양지도원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영양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교육과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이외에도 앞으로 영양사의 진출이 가능한 분야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영양사가 영양상담소를 개업하거나, 또는 백화점과 슈퍼마켓의 식품판매부서에 취업하여 단골고객들의 식단평가와 영양상담을 써비스하여 줄 수도 있으며, 헬스클럽에서의 영양지도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4. 영양사의 배치와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현재의 식품위생법에는 1회의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sup>(4)</sup> 급식인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영양사는 1명만 두면 된다. 실제 많은 산업체에서는 야간급식과 아침급식까지도 실시하고 있으므로<sup>(15)</sup> 1명의 영양사가 많은 인원의 급식관리를 철저히 하기가 어렵다. 산업체 취업영양사와 기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본 결과 응답한 영양사의 98%와 응답한 관리자의 70%가 일정규모 이상의 급식인원을 갖는 대규모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더 두도록 제도를 보강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야간급식과 아침급식이 없을 경우에 1명의 영양사가 담당할 수 있는 적절한 급식인원은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양사와 관리자 모두 1회 급식인원 300~500명 정도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또 현재의 식품위생법에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sup>(4)</sup>. 소규모의 집단급식소에서 겸직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영양사의 업무만으로도 벅찬 대규모의 집단급식소에서 겸직까지 하게 된다면 조리사의 면

허증을 형식적으로 걸어 놓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점에 대하여 현직영양사와 기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응답한 영양사의 90%와 응답한 관리자의 80%가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집단급식소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겸직을 금지시켜야 할 집단급식소의 규모는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양사와 관리자가 다같이 1개의 급식인원이 500명 이상인 급식소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표 8. 여러 나라의 학교급식 실시현황

나 라 명	대 상	실시율(%)*
미 국	유치원	17
	국민학교	99
	하급하이iskool	83
	야간상급하이iskool	91
영 국	초등학교	69
	중학교	56
	특수학교	96
프 랑 스	유치원·국민학교	27
	중·고등학교	37
스 웨 덴	소·중학교	93
	고등학교	85
노 르 웨 이	소·중학교	95
일 본	유치원	19
	국민학교	98
	중학교	65
	야간고등학교	61
대 만	국민학교	50

자료 : 김주성·김명호(1981)<sup>(9)</sup>

\*실시학생수의 비율임.

표 9. 1명의 영양사가 담당할 수 있는 적정 급식인원수

구분	급식인원	100 미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응답자 수	영양사	4	13	35	57	32	50	10	-	6	-	10	-
관리자		-	-	2	21	19	26	5	-	2	-	6	-	-



또 1986년 11월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1회 급식인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들이 급식인원 600명 이하의 범위내에서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영양사 공동관리제도는 기업체의 단독 영양사 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약간 덜어 주는 효과는 있지만 식단제공 이외의 실질적인 급식관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또 직장내에서의 영양사의 위치를 보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면허대여제도로 악용될 소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1988년에 대한 영양사회에서 산업체 취업영양사 5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 급식소의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 영양사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전체 응답자의 21.7%나 되었고 그 중에는 4개소 이상의 급식소를 공동관리하는 영양사도 8.5%나 되었다<sup>(16)</sup>고 하므로 장차 이 제도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빠른 시일내에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병원에서 영양사는 환자들에게 질병에 적합한 식사를 계획적으로 공급하여 치료의 효율을 높여줌과 동시에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식품섭취에 관한 교육도 시켜야 한다<sup>(17)</sup>. 따라서 외국에서는 많은 영양사가 병원에서 임상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입원시설을 갖춘 각종 병원에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상수에 따른 영양사 정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의 병원을 제외하면 환자 개인별 영양치료와 영양상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규정이 더욱 보강되어 병상수에 따른 영양사 정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보건소의 영양지도원도 현재의 국민영양개선령에는 그 자격기준이 ① 의사·약사·간호원·영양사, ② 초급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가정학, 식품학 또는 영양학의 과정을 이수한 자, ③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로 폭 넓게

규정해 두고 있다<sup>(4)</sup>. 그러나 영양전문가인 영양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배출되어 있는 현실정을 감안할 때에 영양지도원의 자격해당자를 영양사만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학교급식 그 자체가 교육의 일환이고 영양교육은 교육내용상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영양전문가인 영양사가 영양교육을 담당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영양사를 양성하는 각급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직과정을 이수시키고 영양교사의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신설하여서 영양사 면허증과 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급식실 시학교에 배치하여 급식관리와 영양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5. 진학기회 제공의 확대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4년제 대학이나 산업대학(개방대학)의 편입학을 통한 진학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 교육전문가들에 의하여 많이 강조되었다<sup>(18,19)</sup>. 많은 취업영양사를 산업체에 배출시키고 있고 또 학문의 진전속도가 아주 빠른 식품영양과는 진학을 통한 영양사의 보충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대학 식품영양과의 경우는 이러한 길이 거의 완전히 막혀 있다. 현재 4년제 대학의 식품영양과에서 편입생을 받는 곳이 거의 없고 또 편입의 자리가 몇 있더라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편입생으로 메꾸어지고 있다. 또 산업대학도 1988년말 현재 6개 대학에 38개 학과를 개설하여 1988년에 4,699명의 편입생을 모집하였지만 식품영양과가 개설된 산업대학은 군산의 전북산업대학 1곳 뿐이며 편입생을 받아들이는 수는 매년 40명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소재지도 전문대학의 식품영양과가 많이 있는 수도권지역이나 영호남 지역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sup>(2)</sup>.

또 한국방송통신대학에는 현재로서는 식품영

표 10.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금지조치가 필요한 급식소 규모

구분	규모	급식인원수												
		100 미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응답자수	영양사	2	12	26	41	29	48	16	7	7	-	22	-	2
	관리자	-	-	3	21	13	32	4	-	3	-	5	-	-

표 11. 편입학의 기회가 넓어지면 진학을 하겠는가?

설문내용	응답자수	
	재학생	취업영양사
편입학 하겠다	184	127
편입학 안하겠다	7	11
잘 모르겠다	49	14

표 12. 편입학의 기회 부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설문내용	응답자수		
	재학생	취업영양사	전문대학교수
4년제 대학에 편입의 기회 확대	121	79	29
산업기술대학에 식품영양과 신설	36	16	36
방송통신대학에 식품영양과 신설	3	5	25
전문대학에 2년제 상급과정 신설	24	27	19

양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재학생과 취업을 하고 있는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본 결과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장차 편입학을 통한 진학의 길이 열리면 학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하여 식품영양과에 진학을 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진학을 원하는 이유는 더욱 유능한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

람(82%)이 가장 많았다.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7%가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졸업생들에게 진학의 길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진학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식품영양과 재학생, 전문대학 출신 취업영양사 및 전문대학 식영과 교수에게 질문해 본 결과는 표 12과 같이 4년제 대학에 정원과는 별도로 전문대학 출신 편입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산업기술대학에 식품영양과의 설치 확대이었다.

#### IV. 요약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졸업생의 진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와 취업영양사 및 산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영양사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식품영양과의 신설을 당분간 억제하고 영양사의 배치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장차 학교, 병원, 보건소, 영양상담소 등으로 영양사의 진출이 확대되어 영양교육담당자 혹은 의료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영양사를 양성하는 각종 대학은 여기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③ 교직과정을 이수한 영양사에게 영양교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 집단급식소에 급식회수와 급식인원수에 따른 영양사 정원제도의 신설, 대규모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규제하는 방안, 영양사 공동관리제도의 재검토, 병원의 병상수에 따른 영양사 정원제도의 신설, 보건소 영양지도원의 자격대상을 영양사만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④ 4년제 대학에 별도의 편입과정을 신설하거나, 산업대학에 식품영양과의 설치를 확대하거나, 전문대학에 2년제의 상급과정을 신설하거나, 방송통신대학에 식품영양과를 신설하여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졸업생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1988년도 문교부의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주신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수님과 현직영양사, 식품영양과 재학생 및 산업체 관리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V. 참고문헌

1.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 전국 전문대학 편람, 대학문화제작사, (1989).
2. 문교부 중앙교육평가원 : 문교통계연보, 정·문출판사, (1988).
3. 대한영양사회 : 집단급식소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국민영양, 제 100 호, 28~33(1988).
4. 보건사회부 : 식품위생관계법규, 수학사, (1989).
5. 김병구 : 국민건강을 위한 영양사의 역할과 현황, 국민영양, 103 호, 9~14(1988).
6. 대한영양사회 인천지부 : 인천지역 영양사 근무실태, 국민영양, 101 호, 22~26(1988).
7. 박찬성·김영희 : 전문대학 식품영양과 교육과정 수정 및 개발에 관한 연구, 신일전문대학 논문집, 제 1 집, 389~425(1987).
8. 문교법전편찬회 : 학교급식법, 문교법전, 교학사, 2216~2223(1989).
9. 김주성·김명호 : 학교급식의 효과적 운영방안, 숙명여자대학교, 62~63(1981).
10. 모수미·이경신·최경숙·김창임·윤은영·이심열·박영숙·이원묘 : 도시국민학교의 식생활 실태조사, 국민영양, 제 93 호, (1987).
11. 金義雄 : 영양교육을 통한 식생활 개선의 효과, 금육학술재단 논문집, 제 4 집, 341~368(1982).
12. 金榮愛 : 학교급식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공주교육대학 논문집, 제 21 집, 251~272(1985).
13. 李英男 : 학교급식의 영양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식량영양학회지, 제 15 권 3 호, 294~299(1986).
14. 朴世薰 : 암·간질환 사망 6년새 2 배, 조선일보, 1989년 1월 28일, 제 12면.
15. 대한영양사회 서울지부 : 급식실태 조사연구, 국민영양, 제 103 호, 22~29(1988).
16. 대한영양사회 : 영양사업무 및 집단급식소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결과, 국민영양, 제 104 호, 17~23(1988).
17. 황순옥 : 국민의료 향상과 임상영양관리 개선방안, 국민영양, 제 104 호, 5~13(1988).
18. 韓方教 : 전문대학교육의 평생교육적 측면 고찰, 부천공업전문대학 논문집, 제 5 집, 5~148(1985).
19. 崔洪錫 : 우리나라 직업기술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의공업전문대학 논문집, 제 9 집, 55~71(1983).